

[41] 5월

초 1일(정묘)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경상 수사가 와보고 돌아갔다. 목욕을 한 차례 했다.

초 2일(무진) 맑음. 일찌기 목욕하고 진을 돌아왔다. 총통 2자루를 만들었다. 김조방장(★ 완)과 조계종(趙繼宗)이 보러 왔었다. 우수사가 김인복(金仁福)의 목을 베어 효시했다. 이날은 사무를 보지 않았다.

초 3일(기사) 맑음. 가물이 너무 심했다. 걱정스러운 말을 어찌 다 하랴.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경상 우후가 와서 활 15순을 쏘았다. 저물게 들어왔다. 총통 2자루를 녹여 만들었다.

초 4일(경오) 맑음. 이날은 어머니의 생신인데 현수하는 술잔을 올리지 못하여 심회가 평온하지 못했다. 나가지 않았다. 오후에 우수사가 사무 보는 집에서 불이 나서 집이 모두 탔다. 이날 저녁 문촌공(文村公)이 부요(富繞)로부터 왔다. 조정(趙玎)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조정(趙玎)이 4월 초1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슬프고 애석하다. 우후가 앞산에서 여제(祭)를 지내기로 했다.

초 5일(신미) 맑음. 이날 새벽에 여제를 지냈다. 일찌기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가 공무를 보았다. 회령(會寧) 만호가 교서(敎書)에 숙배한 뒤에 여러 장수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그대로 들어가 앉아 위로하는 술잔을 네 순배 돌렸다. 몇 순배 돌아간 뒤 경상 수사가 씨름을 붙인 결과 낙안(樂安) 임계형(林季亨)이 일등이었다. 밤이 깊도록 즐거이 뛰놀게 했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랫동안 고생하는 장수들의 수고를 풀어 주자는 생각에서였다.

초 6일(임신)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큰 비가 내렸다. 농민의 소망을 채워주니 기쁘고 다행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비오기 전에 활 5순을 쏘았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날이 막 어둡무렵에 총통과 솥을 넣어 둔 창고에 불이 나서 모두 타 버렸다. 이것을 감관(監官)놈들이 새로 받아들인 솥을 쌀으면서 묵은 불을 살피지 못하여 이런 재변을 보게 된 것이다. 참으로 한탄스럽다. 울(蔚)이 김대복과 같은 배로 나갔는데 비가 크게 쏟아졌으니 잘 갔는지 모르겠다. 밤새도록 앉아서 걱정했다.

초 7일(계유) 비, 비. 늦게 개었다. 이날 울(蔚)이 떠난 후 잘 갔는지 몰라서 걱정스러웠다. 방에도 걱정하고 앉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에 열고 물어보니 이영남(李英男)이 도착한 것이었다. 불어들여 조용히 옛날 지내던 일을 이야기했다.

초 8일(갑술) 맑음. 아침에 이영남과 이야기하고 늦게 나갔다. 경상 수사가 보러왔다. 활 10순을 쏘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두번이나 구토를 했다. 이날 영산(靈山) 이중(李中)의 무덤을 파낸다는 말을 들었다. 저녁에 완(浣)이 들어왔다. 김효성(金孝誠)도 왔다. 비인 현감(備仁縣監)이 들어왔다.

초 9일(을해) 맑음. 몸이 몹시 불편하여 나가지 않았다. 이영남과 평안도 일을 이야기했다. 날이 어둡녘부터 비가 뿌리기 시작한 것이 새벽까지 계속했다. 부안(扶安) 전선(戰船)에서 불이 났으나 과히 타지 않아 다행이었다.

초 10일(병자) 맑음. 나라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신음했다.

11일(정축) 맑음. 새벽에 낮아서 이정(李正)과 이야기했다. 식후에 나가서 비인현감(備仁縣監) 신경증(申景證)을 제 기한에 대어 오지 못한 죄로 곤장 20대를 때리고, 또 순천 격군(順天 格軍), 감관 조명(趙銘)의 죄도 다스렸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들어가 신음했다. 거제(巨濟 ★ 안위(安衛)), 영등(永登 ★ 조계종(趙繼宗)), 이영남(李英男)들과 잤다.

12일(무인) 맑음. 이영남이 돌아갔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신음했다. 김해부사(金海府使 ★ 백사림(白士林))의 긴급 보고가 왔는데, 부산 적의 점령 지구에 있는 김필동(金弼同)이 보낸 고목에도 [수길(秀吉)은 비록 없을지라도, 정사(正使), 부사가 그래도 있으니 곧 화친하고 철병하려고 한다] 하였다.

13일(기묘) 맑음. 부산 허내은만(許乃隱萬)의 고목에 [청정(淸正)이란 놈이 벌써 10일에 제군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갔고, 각 진에 있는 왜들도 장차 철거할 것이요, 부산 왜들은 명나라 사신을 모시고 건너 가려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날 활 9순을 쏘았다.

14일(계진) 맑음. 아침 김해 부사 백사림(白士霖)의 보고도 역시 허내은만(許乃隱萬)의 고

목과 같았다. 그래서 순천 부사에게 전통을 내고, 차례로 이 통보를 돌리도록 지시했다. 활 10순을 쏘았다. 결성(結城) 현감 손안국이 나갔다.

15일(신사) 맑음. 새벽에 망궤례(望闕禮)를 지냈는데 우수사는 오지 않았다. 식후에 나갔다. 들으니 한산도(閑山島) 뒷산 산봉에서 다섯섬과 대마도(對馬島)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혼자 말을 타고 올라가 보니 과연 다섯섬과 대마도가 보였다. 늦게 조그마한 냇가로 돌아 내려와 조방장과 거제와 함께 점심을 먹고 저물어서야 진으로 돌아왔다. 어둔 후 따듯한 물에 목욕을 하고 잤다. 바다에 달은 밝고 바람 한 점 없었다.

16일(임오) 맑음. 아침에 송한련(宋漢蓮)형제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다. 충청 우후, 홍주판관, 비인 현감, 파지도 권관(波知島權官)들이 왔고 우수사도 와 보고 돌아갔다. 이날 밤에 비올 징조가 많더니 자정에 비로소 비가 죽죽 내렸다. 이날 밤 정화수(井花水)를 마시고 싶었다.

17일(계미) 종일 비, 비. 농사에 아주 흡족하여 풍년이 들겠다. 영등 만호 조계종이 보러 왔다. 다락에 기대어 혼자 시를 읊조렸다.

18일(갑신) 비가 잠깐 개기는 했으나 바다의 안개는 걷히지 않았다. 체찰사에게서 서류가 왔다. 늦게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 나가서 공무를 보고 활을 쏘았다. 저녁에 탐후선(探候船)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안녕하시나 진지를 전같이 잡수시지 못하신다니 답답하고 슬프다. 춘절(春節)이 누비옷을 가지고 왔다.

19일(을유) 맑음. 방답(防踏 * 장인(張麟))이 그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여 가기 때문에 우후(虞候)를 가장(假將)을 정해 보냈다. 활 10순을 쏘았다. 땀이 온몸에 배었다.

20일(병술) 맑고 바람도 없었다. 대청 앞에 기둥을 세웠다. 늦게 나갔더니 웅천 현감 김충민(金忠敏)이 와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기에 벼2곡(斛)을 첨지(帖紙)로 써서 주었다. 사도 첨사가 들어왔다.

21일(정해) 맑음. 나가서 공무를 보고, 우후들과 활을 쏘았다.

22일(무자) 맑음. 충청 우후 원유남(元裕男), 좌우후 이몽구(李夢龜), 홍주(洪州) 박윤(朴崙)들과 활을 쏘았다. 홍우(洪祐)가 장계를 가지고 감사(監司)에게로 갔다.

23일(기축)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충청 우후들과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마조항 첨사 장의현(張義賢)이 교서(敎書)에 속해한 뒤 장흥(長興)으로 갔다. 춘절(春節)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밤 10시에 땀이 무시로 흘렀다. 이날 저녁 새로 지은 다락 지붕을 다 이우지 못했다.

24일(경인) 아침에 날이 흐려 비가 올것 같았다. 나가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저녁에 나가서 활 10순을 쏘았다. 부산 허내은만(許內隱萬)의 고목이 왔는데 [좌도 (*경상좌도) 각 진의 왜군이 벌써 모조리 철거하고 다만 부산만 남았다]고 했다. 명나라 수석 사신이 려서 새로 된 사람이 온다고 하는 기별이 22일 부사(副使)에게 왔다고 한다. 허내은만에게 쌀 10말 소금 1곡(斛)을 보내 주고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라고 일렀다. 어둑어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새 쏟아졌다. 박옥(朴玉) 옥지(玉只), 무재(武才)들이 살대 1백 50개를 처음으로 만들어 냈다.

25일(신묘) 비. 종일 비가 내렸다. 홀로 다락 위에 앉았으니 온갖 정회가 그지없다.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 보고 개탄하는 생각이 많았다. 무재 등이 만든 화살이 흰 굽(白蹄)에 톱질을 넣은 것 천개, 흰 굽이 그대로 있는 것 8백 70개.

26일(임진) 음산한 안개는 걷히지 않고 남풍이 세게 불었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충청 우후와 우후들과 함께 활을 쏘는데, 경상 수사도 와서 같이 활 10순을 쏘았다. 이날 저녁 날씨가 찌는 것 같아 계속 땀을 흘렸다.

27일(계사) 가랑비가 종이토록 내렸다. 충청 우후와 우우후가 와서 종정도(從政圖)를 놀았다. 이날 저녁도 찌는 듯 무더워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28일(갑오) 굵은 비가 개지 않았다. 들으니 전라 감사(*홍세공(洪世恭))가 파면되었다고 한다. 청정(淸正)이 부산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모두 못 믿을 말이다.

29일(을미) 굵은 비가 저녁까지 내렸다. 빙모의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고성(固城), 거제(巨濟)가 왔다 갔다.

30일(병신) 흐림. 아침에 곽언수(郭彦壽)가 들어왔다. 영의정(*유성룡)과 도원수(*김명원

(金命元)), 정판부사(鄭判府事), 윤지사(尹知事), 자신(自新), 조사척(趙士), 신식(申湜), 남이공(南以恭)의 편지가 왔다. 늦게 우수사를 가서 보고 종일 즐기다가 돌아왔다.

[42] 6월

초 1일(정유) 곳은 비가 종일 내렸다. 늦게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가 영우후(營虞候 * 이몽구(李夢龜))와 박윤(朴崙 * 홍주판관), 신경증(申景證 * 비인현감)들을 불러 와서 술을 나누며 이야기했다. 윤연(尹連)이 자기 포구로 간다고 하기에 도양장(道陽場)의 종자 공이 부족하거든 김덕록(金德祿)에게서 가져 가도록 하라고 체지(帖紙)를 써 주어 보냈다. 남해(南海)가 도임장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초 2일(무술) 비가 그치지 않았다. 아침에 우후가 방답으로 가고 비인(仁) 원 신경증도 나갔다. 이날 가족으로 앞치마를 만들었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고 활 10순을 쏘았다. 편지를 써서 본영에 보냈다.

초 3일(기해) 흐림. 아침에 제포(齊浦) 만호 성천유(成天裕)가 교서에 숙배했다. 김양간(金良幹)이 농사 지을 소를 싣고 나갔다. 새벽 꿈에 난지 대여섯 달 밖에 안되는 어린 아이를 친히 안았다고 도로 내려 놓았다. 금갑도(金甲島)가 보러 왔다.

초 4일(경자) 맑음.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가리포(加里浦 * 이응표(李應彪)), 임치(臨淄 * 홍건(洪堅)), 목포(木浦 * 방수경(方守慶)), 남도포(南桃浦 * 강응표(姜應彪)),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 홍주 판관(*박윤(朴崙))들이 와서 활 7순을 쏘았다. 우수사(*이억기)가 왔으므로 다시 그려 붙이고 12순을 쏘았다. 취해서 헤어졌다.

초 5일(신축) 흐렸다. 아침에 박옥(朴玉), 무재(武才), 옥지(玉只)들이 연습용 화살 백50개를 만들어 바쳤다. 활 10순을 쏘았다. 경상 우도 감사의 군관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갑사는 집안에 혼사(婚事)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 갔다고 했다.

초 6일(임인) 맑음. 사도(四道)의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여 활을 쏘았다. 술과 음식을 먹고 다시 또 쏘아 승부를 겨루게 하고 헤어졌다.

초 7일(계묘) 아침엔 흐리고 늦게 갠다. 늦게 나가서 충청 우후들과 활 10여순을 쏘았다. 이날 왜의 조총(鳥銃) 값을 주었다.

초 8일(갑진) 맑음. 일찍 나갔다. 활 15순을 쏘았다. 남도포(南桃浦) 만호의 소실인 본포 사람이 허(許)가의 집을 뛰어 들어가서 강짜 싸움을 했다고 한다.

초 9일(을사) 맑음.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충청 우후, 당진 만호(唐津萬戶 * 조효열(趙孝悅)), 여도, 녹도와 활을 쏘는데, 경상 수사가 와서 같이 20순을 쏘았다. 경상 수사가 잘 맞혔다. 이날 아침에 종 금이(金伊)가 본영으로 갔고 옥지(玉只)도 갔고 저녁에 몹시 더워서 땀을 계속 흘렸다.

초 10일(병오) 비가 종일 쏟아졌다. 낮에 부산서 고목이 왔는데 [평의지(平義智)가 초 9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로 들어갔다]고 했다.

11일(정미) 비, 비. 늦게 개다. 활 10순을 쏘았다.

12일(무신) 맑음. 더위가 찌는듯 했다. 충청 우후들을 불러 활 15순을 쏘았다. 남해원(南海 * 박대남(朴大男))의 편지가 왔다.

13일(기유) 맑았으나 몹시 더웠다. 경상 수사가 술병을 들고 와서 활 10순을 쏘았다. 경상 수사가 잘 맞혔지마는 김대복(金大福)이 첫째를 했다.

14일(경술) 맑음.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회()와 수원(壽元)이 함께 왔는데, 어머니가 안녕하시다고 했다.

15일(신해) 맑음.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는데 우수사, 가리포, 나주 판관은 병을 핑계하고 참례하지 않았다. 늦게 나가서 공무를 보고 충청 우후와 조방장 김완(金浣)등 여러 장수를 불러서 화 15순을 쏘았다. 이날 일찍 부산 허내은만(許內隱萬)이 와서 왜적의 정세를 전하기에 양곡을 주어 돌려 보냈다.

16일(임자) 맑음. 늦게 경상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나가 공무를 보고 활 10순을 쏘았다. 저녁에 김봉만(金鵬萬) 배승련(裴承鍊)들이 돛자리를 사가지고 집에 왔다.

17일(계축) 맑음. 늦게 우수사가 와서 활 15순을 쏘고 헤어졌다. 수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

다. 충청 우후는 그 아버지의 제삿날이므로 거망포(巨網浦)로 간다고 한다.

18일(갑인) 맑음. 늦게 나갔다. 활 15순을 쏘았다.

19일(을묘) 맑음. 체찰사에게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늦게 나가서 활 15순을 쏘았다. 이설(李潑)에게서 황정록(黃廷祿)의 형편없는 짓을 들었다. 발포(鉢浦) 보리밭에서 26섬이 났다고 한다.

20일(병진) 맑음. 어제 아침에 곡포 권관(曲浦 權管) 장후완(蔣後浣)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평산포 만호(平山浦 萬戶 * 김축(金軸))에게 진작 집에 돌아오지 않은 일을 문책하니 기일을 한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50여일을 물리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해괴스럽기 짝이 없으므로 곤장 30대를 때렸다. 오늘 낮에 남해원(* 박대남(朴大男))이 들어와 교서에 숙배한 뒤 같이 이야기도 하고 활을 쏘았다. 충청 우후도 와서 같이 15순을 쏘았다. 다시 박남해(朴南海)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진중 사정을 이야기하듯 밤이 깊은 후 헤어졌다. 임달영(任達英)이 또 왔는데 소를 무역한 명세표와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21일(정사) 내일이 제삿날이므로 공무를 보지 않았다. 아침에 남해를 불러다가 식사를 같이 했다. 남해가 경상 수사에게 갔다가 저녁때 돌아와서 이야기했다.

22일(무오) 맑음. 할머니의 제삿날이 되어 공무를 보지 않고 종일 남해와 이야기했다.

23일(기미) 새벽부터 비가 내려 종일 비, 비. 남해와 이야기했다. 늦게 남해와 경상수사에게 갔다. 경상 수사가 조방장(助防將 * 김완(金浣)), 충청 우후(忠淸虞候 * 원유남), 여도(呂島 * 김인영(金仁英)), 사도(蛇渡 * 황세득(黃世得))들을 불러 남해에게 술과 고기를 먹였다. 곤양(昆陽) 군수 이극일(李克一)도 보러 왔다. 저녁때 남해 원()이 경상수사에게 돌아왔는데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 하동(河東)도 도로 본 고을로 돌려 보냈다.

24일(경신) 초복, 맑음. 일찌기 나가 충청 우후와 활 15순을 쏘았는데, 경상 수사도 와서 같이 쏘았다. 남해는 자기 고을로 돌아갔다. 항복한 왜인 야여문(也汝文)들이 저의 동류를 신시로(信是老)를 죽이자고 청하기에 죽이라고 명령했다. 남원(南原)의 김홍(金弘)이 군량을 축낸 데 대해서 증거 자료를 얻고자 이리로 왔다.

25일(신유) 맑음. 일찍 나가서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조방장, 충청 우후, 임치 첨사, 목포 만호, 마량 첨사, 녹도 만호, 당포 만호, 회령포 만호, 파지도 들이 와서 철전(鐵箭)으로 5순, 편전(片箭)으로 3순, 보통 화살로 5순을 쏘았다. 남원의 김홍이 하직을 고하였다. 이날 저녁때 몹시 더워서 땀을 흘렸다.

26일(임술) 큰 바람이 불고 잠시 비까지 족족 쏟아졌다. 늦게 나가서 철전과 편전을 각각 5순씩 쏘았다. 왜인 난여문(亂汝文 * 南右衛門)들이 와서 고하는 목수의 아내를 붙잡아 들여 곤장을 때렸다. 이날 낮에 망아지 2필(이하 석자 [落四下]의 뜻은 이상함)

27일(계해) 맑음. 나가서 김 조방장, 충청 우후, 가리포, 당진포, 안골포 등과 철전 5순 편전 3순, 보통 화살 7순을 쏘았다. 이날 저녁 송구(宋逖)를 가두었다.

28일(갑자) 맑음. 명종(明宗)의 제삿날이 되어 사무를 보지 않았다. 아침에 고성현령(固城縣令)이 보낸 긴급 보고에는 순찰사의 일행이 어제 벌써 사천(泗川)에 도착되었고, 오늘은 소비포(所非浦)로 오리라고 했다. 수원(壽元)이 돌아갔다.

29일(을축)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날이 들어왔다. 주선(周旋)이 받아갔다. 늦게 나가서 공무를 본 후, 조방장, 충청 우후, 나주 판관과 함께 철전, 편전, 보통 활도합 18순을 쏘았다. 무더위가 찌는 듯 하였다. 초조녁에 땀이 줄줄 흘렀다. 남해원의 편지가 오고 야여문(也汝文)이 돌아갔다.

[43] 7월

초 1일(병인) 맑음. 인종(仁宗)의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경상 우도 순찰사(* 서성(徐))가 진중에 이르렀으나 이날은 서로 만나지 못하겠다고 그의 군관 나광(羅宏)이 그 주장(主將)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초 2일(정묘) 맑음. 아침 후 경상도 진으로 가서 순찰사와 같이 이야기했다. 한동안 지난후 새로 지은 정자위에 올라가서 편을 짜서 활을 쏜 결과 경상 우도 순찰사 편이 백 62점이나 졌다. 종일 아주 즐겁게 지내다가 불을 켜들고 돌아왔다.

초 3일(무진) 맑음. 아침 후 순찰사와 도사(都事)가 내게로 와서 활을 쏘았다. 순찰사 편에서 또 96점을 지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아침 나절 체찰사에게서 서류가 왔다.

초 4일(기사) 맑음. 아침 후 경상도 진으로 가서 순찰사와 만나 한참 이야기하다가 배로 내려가 같이 타고 포구로 나가니 여러 배들은 열을 지어 있었다. 종일토록 이야기하고 선암(仙岩 * 한산면) 앞 바다에 이르러 배를 갈아 타고 떠났다. 멀리 바라보면서 서로 읊(揔)하고 그 길로 우수사와 경상 수사와 함께 같은 배로 돌아왔다.

초 5일(경오) 맑음. 늦게 나가 활을 쏘았다. 충청 우후도 와서 같이 쏘았다.

초 6일(신미) 맑음. 일찌기 나가서 각처의 서류를 처결했다. 저물 무렵에 거제, 웅천, 삼천포가 보러 왔다. 이곤변(李鯤變)의 편지가 왔는데, 그 사연 중에는 입석(立石)의 잘못을 많이 말했다. 우스운 일이다.

초 7일(임신) 맑음. 경상 수사와 우수사가 여러 장수들이 와서 세가지 화살로 활 연습을 하였다. 종일 비는 오지 않았다. 저녁때 활 만드는 직공 지이(智伊)와 춘복(春卜)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초 8일(계유) 맑음. 충청 우후와 활 10순을 쏘았다. 체찰사의 비밀 표형(秘密 標驗)을 받으러 갔다고 한다.

초 9일(갑술) 맑음. 아침 나절 체찰사에게 가는 각항 공문을 서류로 작성해서 이전(李田)이 받아 가지고 갔다. 늦게 경상 수사가 와서 통신사가 탈 배의 설비가 아주 완전치 못하다고 누누히 말했다. 우리 것을 빌어 썼으면 하는 뜻이 그 말속에 나타났다. 물을 끌어드릴 대나무와 중국 가는 사신들이 요구하는 부채를 만들 대나무를 얻어 오기 위해서 박자방(朴自邦)을 남해로 보냈다. 오후에 활 10순을 쏘았다.

초 10일(을해) 맑음. 새벽 꿈에 어떤 사람이 화살을 멀리 쏘는 것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 갓을 발로 차서 부수는 것이었다. 스스로 점을 쳐 보니 화살을 멀리 쏘는 것은 적들이 멀리 도망하는 것이요, 또 갓을 발로 차서 부수는 것은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발길에 걸려 채이는 것으로서 적의 괴수를 모조리 잡아 없앨 징조라 하겠다. 늦게 받은 체찰사의 전령에 [황첨지(黃僉知 * 신(愼))가 이제 명나라 사신을 따라 가는 정사(正使)가 되고 권황(權滉)이 부사(副使)가 되어 근일중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니 그들이 탈 배 3척을 정비하여 부산으로 돌려 대라]고 했다. 경상 우후가 와서 백문석(白紋席) 1백 50냥을 빌려 갔다. 충청 우후, 사랑(蛇梁) 만호(* 김성옥(金聲玉)) 지세포(知世浦) 만호, 옥포만호(* 이담(李曇)), 홍주 판관(* 박윤(朴崙)), 전적도 만호 고여우(高汝友)들이 보러 왔다. 경상 수사가 보낸 긴급 보고에, [춘원도(春元島 * 통영군 광도면)에 왜선 1척이 와 대었다]하므로 장수를 뽑아 보내며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11일(병자) 맑음. 체찰사에게서 통문 온 배 준비에 관한 일로 아침에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늦게 경상 수사가 와서 바다를 건너가는 사신들을 뒤 따라가고 다시 격군(格軍)들을 의논하고 또 그 사람들의 길 양식으로 23섬을 짚은 것이 21섬이 되므로 2섬 1말이 준 셈이었다. 나가서 공무 보고 세가지 화살로 활 쏘는 것을 보았다.

12일(정축) 맑음. 새벽에 비가 잠시 뿌리다가 곧 그치고 무지개가 서서 한참 그대로 있었다. 늦게 경상 우후 이의득(李義得)이 와서 상자리 15냥을 빌려갔다. 부산에 실어 보낼 군량으로 상등미 20섬, 중등미 40섬을 차사원(差使員), 변익선(邊翼星)과 수사 군관 정존극(鄭存極)이 받아 갔다. 조방장이 오고 충청 우후도 와서 활을 쏘았다. 같은 과거에 급제한 남치온(南致溫)이 왔다.

13일(무인) 맑음. 명나라 사신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탈 배 3척을 정비하여 오전 10시에 띄워 보냈다. 늦게 활 13순을 쏘았다. 해진 뒤에 항복한 왜인들이 광대 놀이를 차렸다. 장수된 사람으로서는 그대로 둘 것이 못되지만 항복한 왜인들이 놀음 한번 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금하지 못했다.

14일(기묘) 아침에 비가 뿌렸다. 오늘이 망(望)이다. 저녁에 고성 현령(固城縣令) 조응도(趙凝道)가 와서 이야기했다.

15일(경진) 새벽에 비가 뿌려 망궤례를 드리지 못했다. 늦게 말짱히 갬다. 경상 우수사, 전라 우수사가 모여 활을 쏘고 헤어졌다.

16일(신사) 새벽엔 비. 늦게 갬다. 북쪽으로 툇마루 3간을 만들었다. 이날 충청도 홍주(洪州)의 격군으로서 신평(新平) 사는 사삿집 종 엇복(於叱卜)이 도망하다가 붙잡혔으므로 목을 잘라 내다 걸었다. 사천, 하동 두원이 왔다. 늦게 세가지 화살로 활을 쏘았다. 이날 저녁 바닷 달이 하도 밝아서 혼자 다락에 기대었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17일(임오) 새벽에 비가 뿌리다 곧 그쳤다. 충청도 홍산(鴻山)에서 큰 도둑들이 일어나 홍산(洪山) 원 윤영현(尹英賢)이 붙잡히고 서천(舒川)군수 박진국(朴振國)도 끌려 갔다고 한다. 바깥 도둑을 못 없앤 이때 안 도둑이 이러하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남치온(南致溫)과 고성, 사천이 돌아갔다.

18일(계미) 맑음. 각처의 공문을 적어 보냈다. 충청 우후와 홍주 판관이 충청도의 도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알렸다. 저녁때 들으니 항복한 왜적 연은기(戀隱己), 사이여문(沙耳汝文)들이 흉악한 음모를 꾸며서 남여문(南汝文)을 죽이려 했다고 한다.

19일(갑신) 맑았으나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남여문이, 연은기, 사이여문 등의 목을 잘랐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돌아갔다. 경상 우후 이의득(李義得), 충청 우후, 다경포 만호 윤승남(尹承男)도 왔었다.

20일(을유) 맑음.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 본영의 탐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고 다행하다. 그 편에 들으니 충청도 도둑(* 이몽학(李夢鶴))이 포수 이시발(李時發)의 총에 맞아서 즉사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21일(병술) 맑음.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거제와 나주, 홍주 판관들이 옥포, 웅천, 당진 포들과 함께 왔다. 옥포에는 배 만드는데 쓸 양식이 없다고 하므로 체찰사 관계의 군량중에서 2곡(斛)을 내주시고, 웅천과 당진포에는 배만들 쇠 15근을 함께 주었다. 이날 아들 회()가 방자(房子) 수(壽)를 곤장 때렸다 하기에 아들을 돌아래로 붙들어가다 잘 타일었다. 밤이 든 후에 땀이 줄줄 흘렀다. 통신사가 청하는 표범 가죽을 가지러 본영에 배를 보냈다.

22일(정해)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종일 나가지 않고 홀로 다락 위에 앉아 있었다. 종효대(孝代), 팽수(彭壽)가 흥양(興陽)의 군량선을 타고 나갔다. 저녁때 순천(順天)서 보낸 통문을 보니 [충청도 도둑이 홍산(鴻山)서 일어난 것을 곧 죽였는데 홍주(洪州)등 세 고을이 포위 당했다가 간신히 면했다]고 했다. 참 한심한 일이다. 자정에 비가 크게 쏟아졌다. 낙안(樂安)의 교대할 배가 들어왔다.

23일(무자) 큰 비가 내리다가 오전 10시에 개었으나 이따금 보슬거렸다. 늦게 홍주 판관 박윤(朴崙)이 하직을 고하고 나갔다.

24일(기축) 맑음. 현덕 왕후의 제삿날이다. 이날 우물을 고쳐파는데를 가 보았다. 경상 수사도 왔다. 거제, 금강도, 다경포도 왔다. 샘 줄기가 깊이 들어가고 근원도 길다. 점심후 돌아와서 활 2가지를 쏘았다. 어둑녘에 객연수가 표범 가죽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날 밤 속이 답답하여 자기 못하고 밤중까지 앉았다 누웠다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잠들었다.

25일(경인) 맑음. 아침에 사냥한 꾀질들의 수효를 세어 녹피 10장은 창고에 넣고 표범가죽과 화문석(花紋席)은 통신사(通信使)에게로 보냈다.

26일(신묘) 맑음. 이전(李筌)이 체찰사에게서 표험(標驗) 3벌을 받아 가지고 왔기에 하나는 경상 수사에게 보내고, 하나는 전라 우수사에게 보냈다. 금부(禁府)의 나장(羅將)이 윤승남(尹承男)을 붙잡아 가려고 내려왔다.

27일(임진) 맑음. 늦게 활터로 달려가서 녹도(鹿島)에게 길 닦을 것을 지시했다. 다경포 만호 윤승남이 잡혀 갔다. 종 경(京)이 병을 앓았다.

28일(계사) 맑음. 종 무학(無鶴), 무화(無花), 박수매(朴壽每), 우로(于老), 음금(音金) 등이 26일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늦게 충청 우후와 함께 활 3가지를 쏘았는데 철전(鐵箭)이 36분, 편전(片箭)이 60분, 보통 화살이 26분, 함께 1백 23분이었다. 종 경(京)이 몹시 앓는다고 하니 염려된다. 고향 아산(牙山)으로 추석 제물(祭物)을 보내는 홍(洪), 윤(尹), 이(李) 등 네 군데 편지를 부쳤다. 밤 10시에 꿈속에서까지 땀을 흘렸다.

29일(갑오) 맑음. 경상 수사와 우후가 와서 보고, 충청 우후가 함께 와서 활 3가지를 쏘았다. 내가 쏘던 활을 * 고재가 들떠서 곧 수리하라고 하였다. 체찰사로부터 초시(初試)를 보인다고 공문이 도착했다. 저녁때 들으니 점장이 집의 집보던 아이가 그 집의 잔 세간을 훔쳐 가지고 도망했다고 한다.

30일(을미) 맑음. 새벽에 갈물(葛沒)이 들어왔다. 밤 꿈에 영의정과 조용히 이야기했다. 아침에 이진(李珍)이 본영으로 돌아가고 춘화(春花)도 돌아갔다. 김대인(金大人)이 선제(禪祭)를 지내기 위해서 말미를 받아가지고 돌아갔다. 신 것을 알았다. 위에서 유서(諭書) 2통이 내려왔다. 싸움에 쓸 말과 면()의 말도 들어 오고 지이(智伊)와 무재(武才)도 함께 왔다.

초 1일(병신) 맑음. 새벽에 망궐례를 드렸다. 충청 우후(*원유남), 금강, 목포, 사도 녹도들이 참례했다. 늦게 파지도 관관 송세응(宋世應)이 돌아갔다. 오후에 활터에 나가서 말을 달리다가 저물게 돌아왔다. 부산갔던 곽언수(郭彦水)가 돌아와서 통신사의 답을 전했다. 어둠 무렵에 비올 징조가 많으므로 비 오기 전에 예비할 일들을 지시했다.

초 2일(정유) 아침에 비가 크게 쏟아졌다. 지이(智伊)들로 하여금 새로 만든 활들을 폼다가 늦춰다가 해보게 하였다. 늦게 광풍이 일어나고 빗발이 상대 같아서 대청 마루에걸어 놓은 바람막이가 방 마루 바람막이에 부딪쳐 일시에 두 바람막이가 깨어져 조각조각 났다. 아까왔다.

초 3일(무술) 맑았으나 가끔 비가 내렸다. 지이(智伊)로 하여금 새로 만든 활들을 바꿔 보게 하였다. 조방장과 충청 우후가 와서 활을 쏘았다. 아들들은 *육냥궁(六兩弓)을 쏘았다. 이날 저녁 송희립과 아들들을 시켜 이름이 기록된 황득중(黃得中), 김응겸(金應謙)의 허통(許通)하는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게 했다. 오후 8시부터 비가 시작해서 새벽 2시에야 그쳤다.

초 4일(기해)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었다. 회()는 면() , 완(莞 *조카)들과 함께 아내의 생신 헌수잔(獻壽盃)을 드리기 위해 떠나 갔다. 정선(鄭)도 나가고 정사립(鄭思立)도 말미를 얻어 가지고 갔다. 늦도록 다락에 앉아서 아이들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느라고 바람에 상하는 줄도 몰랐다. 늦게 대청에 나가서 활 두어순을 쏘다가 몸이 몹시 불편하여 활을 중지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몸이 움추려져서 곧 두텁게 덮고 땀을 내었다. 저물게 경상 수사가 와서 문병하고 갔다. 밤에는 낮보다 배나 알아 신음하면서 밤을 새웠다.

초 5일(경자) 맑음. 몸이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 가리포(*이응표)가 보러 왔다.

초 6일(신축)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길 조방장과 충청 우후, 경상 우후들이 와서 문병하고 갔다. 당포 만호는 와서 그 어머니의 병환이 대단한 것을 아뢰었다. 경상수사와 우수사가 보러 왔다. 배(裵) 조방장(*배흥립-興立)이 들어왔다. 해가 진 뒤에 흠어져 갔다. 밤비가 크게 퍼부었다.

초 7일(임인) 비가 죽죽 내리다가 늦게 개었다. 몸이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 서울 보낼 편지를 썼다. 이날 밤에 땀이 옷 두 겹을 적시었다.

초 8일(계묘) 날이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박담동(朴淡同)이 서울 올라가는 편에 서승지(徐承旨 *성())에게 혼수(婚需)를 보내었다. 늦게 강희로(姜熙老)가 왔는데 남해의 병은 좀 낫다고 했다. 밤이 깊도록 같이 이야기했다. 의능(宜能)이 생마(生麻) 1백 20근을 가져다가 바쳤다.

초 9일(갑진) 흐렸으나 비는 안 내렸다. 아침에 수인(守仁)에게서 생마(生麻) 2백 30근을 받 아들였다. 하동(河東)에 다가 종이를 가공하여 달라고 도련지(鍊紙) 20권, 주지(注紙) 32권, 장지(狀紙) 31권을 김응겸(金應謙)과 곽언수(郭彦水)에게 주어 보냈다. 마량 첨사(馬梁僉使) 김응황(金應璜)이 *포평(褒貶)에서 하(下)를 맞고 나갔다. 늦게 나가서 서류를 처결해 나누어 주었다. 활 10순을 쏘았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10시에 이르러 땀이 흘렀다.

초 10일(을사) 맑음. 아침에 충청 우후가 문명하러 왔다가 조방장과 함께 아침밥을 먹었다. 아침에 송한련(宋漢連)에게 그물을 만들라고 생마(生麻) 40근을 주어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한동한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다. 늦게 두 조방장과 충청 우후를 불러 상화 떡(床花(霜花))을 만들어 같이 먹었다. 저녁에 체찰사에서 보낼 공문을 서류로 만들었다. 어둠녘에 달빛은 비단 같고 회포는 만갈래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 10시에 방에 들어왔다.

11일(병오)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었다. 체찰사에게 가는 각항 공문을 서류를 만들어 발송했다. 배(裵) 조방장(*흥립(興立))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늦게 활터로 같이 가서 말 달리는 것을 보고 저물어 영(營)으로 돌아왔다. 초저녁에 거제가 급히보고 하기를 [왜선 1척이 등산(登山)으로부터 송미포(松美浦)로 들어왔다]고 하더니 밤 10시에 다시 보고하되, [아자포(阿自浦)로 옮겨 대었다]하므로 배를 정하여 내어 보낼 즈음 또다시 보고가 오기를 [견내량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북병장에게 잡으라고 명령했다.

12일(정미)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었다. 동으로 가는 배가 도무지 내왕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어머니 안부를 듣지 못하여 답답했다. 우수사가 보러 왔었다. 땀이 옷 두겹을 다 적시었다.

13일(무신) 날이 개었다가 흐리고 동풍이 크게 불었다. 충청 우후와 활을 쏘았다. 밤에 땀이 흘러 등을 적시었다. 아침에 우(禹)가 곤장을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사지낼 물건을

약간 보내 주었다.

14일(기유)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동풍이 연일 불어서 벼 곡식이 결단 난다고 한다. 배 조장방, 충청 우후와 같이 이야기했다. 땀이 나지 않았다.

15일(경술) 새벽에 비가 죽죽 내려 망궤례를 못 올렸다. 늦게 우수사, 경상 수사 및 두 조방장, 충청 우후, 가리포, 평산포 등 열 아홉 장수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 했다. 비는 종일 그치지 않았다. 밤 8시쯤 남풍이 불면서 비가 더 크게 쏟아졌다. 새벽 2시까지 세번 땀을 흘렸다.

16일(신해) 잠깐 개었으나 남풍이 크게 불었다. 강희로(姜熙老)가 남해(南海)로 갔다. 몸이 몹시 언짢아서 종일 누워서 지냈다. 저녁 나절 체찰사가 진주(晋州)에 왔다는 기별을 받았다. 새로 갠 하늘의 달빛이 하도 밝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밤 10시에 가는 비가 내리다가 이윽고 그쳤다. 땀을 흘렸다.

17일(임자) 갠다 흐렸다 하며 비가 오락가락했다. 경상 수사가 보러 왔고, 충청 우후와 거제도 보러 왔다. 이날 동풍이 그치지 않았다. 체찰사에게 사람을 보냈다.

18일(계축) 비가 개다 오다했다. 자정에 죄인에게 특사를 내리는 글을 가지고 온 차사원(差使員) 구례현감(求禮縣監)이 들어왔다. 땀이 무시로 흘렸다.

19일(갑인) 흐리다 맑다 하였다. 새벽에 우수사 이하 여러 장수들과 함께 특사 내리는 조칙문에 절하고 그대로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구례가 하직을 고하고 돌아갔다. 송의련(宋義連)이 본영으로부터 들어왔다. 울(蔚)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 이 내내 평안하시다니 다행 다행이다. 늦게 거제와 금강도가 와서 이야기했다.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땀을 흘렸다. 어둑에 옥수 옥지(玉只)가 재목에 치어서 중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20일(을묘) 동풍이 크게 불었다. 새벽에 전선(戰船)만들 재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도 군사 3백명, 경상도 1백명, 충청도 3백명, 좌도 3백 90명을 송희립이 거느리고 갔다. 늦은 아침에 봉, 해, 회, 면, 완이 최대성(崔大晟), 윤덕종(尹德種) 정선(鄭)들과 함께 들어왔다.

21일(병진) 맑음. 식후에 활터에 나가 아들들에게는 활 쏘기를 익히고 또 말을 달리면서 활 쏘는 것도 연습시켰다. 배 조방장, 김 조방장이 충청 우후와 함께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 저물어서 돌아왔다.

22일(정사) 맑음. 외조모님의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경상 수사가 보러왔었다.

23일(무오) 맑음. 활터에 가 보았다. 경상 수사도 와서 같이 갔다.

24일(기미) 맑음.

25일(경신) 맑음.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와 보고 돌아갔다.

26일(신유) 맑음. 새벽에 배로 출발하여 사천(泗川)에 이르러 유숙했다. 충청 우후와 함께 종일토록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27일(임술) 맑음. 일찌기 떠나 사천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그대로 진성(*진주)으로 향하여 체찰사(*이원익(李元翼))를 뵈고 종일 의논하였다. 저물녘에 목사(牧使 *나정언(羅廷彦))의 처소로 돌아와 잤다. 김응서(金應瑞)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이날 저녁 이용제(李用濟)가 역적 도당에 관한 편지를 가지고 왔다.

28일(계해) 맑음. 아침에 체찰사에게 나아가서 종일 품고하고, 초저녁이 된 뒤에야 목사의 처소로 돌아와서 목사와 밤 들도록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청생(靑生)도 왔다.

29일(갑자) 맑음. 일찍 출발하여 사천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그대로 선소(船所 *읍남면 선진리(邑南面 船津里))로 왔다. 고성(固城 *조응도(趙凝道)도 왔다. 삼천포와 이곤변(李鯤變)이 뒤미처 와서 밤늦도록 이야기하고 구라량(仇羅梁)에서 잤다.

[45] 윤 8월

초 1일(을축) 맑음. 일식(日蝕)을 했다. 이른 아침에 비망나루로 와서 이곤변(李鯤變)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작별했다. 저물어 진중에 이르니 우수사와 경상 수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수사와 이야기했다.

초 2일(병인) 맑음. 아침에 여러 장수들이 보러 왔다. 늦게 경상 수사와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 했다. 경상수사와 함께 사정으로 나갔다.

초 3일(정묘) 맑음.

초 4일(무진) 비, 비. 이날밤 10시에 땀을 흘렸다.

초 5일(기사) 맑음. 사정으로 나가서 아이들(*아들들을 말함)의 말 달리고 활 쏘는 것을 구경했다. 하천수(河千壽)가 체찰사에게로 갔다.

초 6일(경오) 맑음. 아침 식사 후 경상수사와 우수사가 함께 사정에 가서 말 달리며 활 쏘는 것을 보고 저물어 돌아왔다. 방답 첨사가 진중에 도착했다. 이날 밤 잠시 땀을 흘렸다.

초 7일(신미) 맑음. 아침에 아산(牙山) 종 백시(白是)가 들어왔다. 가을보리는 소출이 43섬이요, 봄 보리는 소출이 35섬이요, 쌀은 전부 12섬 4말이요, 또 7섬 10말이 나고 또 4섬이 났다고 한다. 이날 늦게 나가 소지들을 처결했다.

초 8일(임신) 맑음. 식후에 사정에 나가 말 달리며 활 쏘는 것을 보았다. 광양(*이함림-李咸臨), 고성(固城 *조응도-趙凝道)이 시관(試官)으로 들어왔다. 하천수가 진주에서 돌아왔다. 수하에서 부리는 병졸 임정로(林廷老)는 말미를 받아 가지고 떠나갔다. 이날 밤에 땀을 내었다.

초 9일(계유) 맑음. 아침에 광양 원이 교서(敎書)에 숙배했다. 봉(), 회()와 김대복(金大福)도 교서에 숙배하였다. 그리고 같이들 이야기 하였다. 이날 저녁 우수사와 경상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초10일(갑술) 맑음. 새벽에 초시(初試)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면()이 쓴 것은 모두 30보, 봉()이 쓴 것은 모두 35보, 해()가 쓴 것은 모두 30보, 회()가 쓴 것은 모두 35보, 완(莞)이 쓴 것은 모두 25보라고 했다. 진무성(陳武晟)이 쓴 것은 모두 55보로 합격되었다. 어둑에 우수사, 경상 수사, 배 조방장이 같이 왔다가 밤 10시께 헤어졌다.

11일(을해) 맑음. 체찰사를 모시는 일로 진중을 출발하여 당포(唐浦 *통령군 산양면 삼덕리)에 이르렀다. 저녁 8시에 체찰사에게 갔던 사람이 돌아 왔는데 14일에 떠난다고 하였다.

12일(병자) 맑음. 종일 노를 빨리 저어 밤 10시쯤에 어머니 앞을 이르렀다. 백발이 부수수한 채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시는데, 기운이 흐려져 아침 저녁을 보전하시기 어렵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앉아, 밤이 새도록 위로하여 그 마음을 풀어 드렸다.

13일(정축) 맑음. 모시고 옆에 앉아 아침 진지상을 드리니 대단히 즐거워하시는 빛이었다. 늦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본영(*여수)으로 돌아왔다. 오후 6시쯤에 작은 배를 타고 밤새 노를 재촉하였다.

14일(무인) 맑음. 새벽에 두치(豆恥 *광양군 다압면 섬거리)에 다달으니 체찰사와 부사(*한효순-韓孝純)가 어제 벌써 와서 갔다고 한다. 뒤미처 점검하는 곳으로 가서 소촌 찰방(召村察訪)을 만나고 일찍 광양 고을에 이르렀다. 지나온 지역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 참혹한 꼴을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우선 전선(戰船) 정비하는 것을 면제해 주어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 주어야 겠다.

15일(기묘) 맑음. 일찍 떠나 순천에 달으니 체찰사 일행이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 하므로 나는 정사준(鄭思竣)의 집에서 잤다. 순찰사도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에 들으니 아들들이 초시(初試)에 뽐냈다고 한다.

16일(경진) 맑음. 이날은 거기서 머물렀다.

17일(신사) 맑음. 늦게 낙안(*승주군 낙안면)으로 향하여 고을에 이르니 이호문(李好問), 이지남(李智男)들이 보러 와서 폐단이 전혀 수군에 있다고 말했다.

18일(임오) 맑음. 종사관 김용(金湧)이 상경하였다. 일찍 떠나 양강역(陽江驛)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산성(山城 *고흥군 남양면 대곡리)으로 올라가 멀리 바라보며 각 포구와 여러 섬들을 지점(指點)하고, 그 길로 흥양(興陽 *고흥읍)으로 향하였다. 저물어 고을에 이르러 향소청(鄉所聽)에서 잤다. 어둑에 이지화(李知和)가 거문고를 가지고 오고 영(英)도 보러 와서 밤새 이야기했다.

19일(계미) 맑음. 떠나서 녹도(鹿島 *고흥군 도양면 녹두-鹿頭)로 가는 길에 도양(道陽 *도양면 도덕리)의 둔전을 살펴보았다. 체찰사의 얼굴에 기쁜 빛이 떠돌았다. 녹도에서 잤다.

20일(갑신) 맑음. 일찍 떠나 배를 타고 체찰사와 부사와 함께 앉아 종일 군사 이야기를 했다. 늦게 백사정(白沙汀)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그 길로 장흥(長興)에 이르러 나는 동헌(東軒)에서 잤다. 김응남(金應南)이 보러왔다.

21일(을유) 맑음. 그대로 묵었다. 정달영(丁景達)이 보러 왔다.

22일(병술) 맑음. 늦게 병영(兵營 * 강진군 고군면 병영)에 이르러 * 원(元)을 만나 밤이 들기까지 이야기했다.

23일(정해) 맑음.

24일(무사) 나는 부사와 함께 가리포(加里浦 * 완도군 완도면)로 갔더니 우우후 이정충(李廷忠)이 먼저 와 있었다. 같이 남쪽 망대(望臺)로 오르니, 좌우로 적들이 다니는 길과 여러 섬을 역력히 헤아릴 수 있었다. 참으로 한도(一道)의 요충지이다. 그렇지만 형세가 외롭고 위태롭기 때문에 이진(梨津 *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으로 옮겨 합친 것이다. 병영으로 돌아왔다. 원공(*균)의 흉한 행동은 기록하지 않는다.

25일(기축) 일찍 떠나 이진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곧 해남으로 가는 중간에 김경록(金景祿)이 술을 차고 보러 왔다. 어느 새 날이 저물어 햇불을 잡히고 갔다. 밤 10시께야 고을에 당도했다.

26일(경인) 맑음. 일찌기 떠나 우수영(右水營)에 이르렀다. 나는 태평정(太平亭)에서 자면서 우후(* 이정충-李廷忠)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27일(신묘) 맑음. 체찰사가 진도(珍島)로부터 영(營 * 우수영)으로 들어왔다.

28일(임진) 비가 조금 내렸다. 우수영에서 묵었다.

29일(계사) 비가 조금 내렸다. 이른 아침에 남여역(男女驛 *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南利里)에 이르렀고 점심 후 해남현(海南縣)에 당도했다. 소국진(蘇國進)을 본영으로 보냈다.